

## 大學院 教科教育의 本質과 發展課題\*

車 京 守  
(社會教育科)

### I. 序 論

教師에 대한 사회의 기대는 어느 사회에서나 대단히 크다. 그것은 교사가 인간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주체적인 원동력이 되는 人間의 成長을 도와 주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에서 오는 것이다. 교사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으며, 教育의 歷史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교사가 젊은 세대들을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게을리 할 때에 그 사회가 일관성있게 발전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人間의 成長을 도와 주는 교사의 역할은 산업사회에 오면서 사회가 전문화되어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사회적 중요성을 갖게 되면서 더욱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결코 예외는 아니다. 해방 후만 생각해 보아도, 第2次大戰後 새롭게 탄생한 新生國의 國家發展을 위하여 학교교육에서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려는 도덕교육이 계속 강조되어 왔다. 특히 산업화가 가속화된 70년대 이후에는 人間性의 소의를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의 急進思想의 혼미 속에서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학교교육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教師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해 볼 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學習指導 또는 教科指導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물론 학생의 학교밖에서의 생활이나 가정에서의 행동 또는 학습시간 이외의 활동도 지도하지만 教科를 통한 學習指導가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학습지도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도록 지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教科의 조직을 통하여 그 교과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를 학습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물론 그 교과가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는 態度와 價値觀 등도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말하자면 學習指導는 학교에서 학생들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 학습지도를 통하여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간적 성장”을 도

\* 이 연구는 1986학년도 학술연구 조성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教科教育學의 體系的 發展을 위한 研究」의 一部임.

와 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적 성장에는 물론 지식의 획득과 인격의 형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學習指導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 볼 때에, 그것은 教科의 문제로 귀착한다. 그리고 教科는 그 교과를 구성하고 있는 學問의 背景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초·중등학교의 「社會科」라는 교과는 政治學이나 經濟學과 같은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리학이나 생물학이 초·중등학교의 「教科」를 구성하고 있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우리는 教師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사회과」라고 하는 교과목의 두 개 영역과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教科의 내용인 학문에 대한 연구와 함께 그 교과를 어떻게 구성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교사에게는 모두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教科教育이며, 그것은 師範大學에 기대되는 핵심적인 임무라는 것도 쉽게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학문을 연구하는 일에는 상당한 관심을 표시해 왔으나, 教科를 연구하는 일에는 비교적 소홀히 해 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師範系大學 評價實施委員會, 1979:85-89).

그러나, 1980년대에 오면서 國民의 基礎教育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師範大學의 教科教育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사회의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1984년과 85년에는 정부가 해외에 파견하는 국비유학생으로 教科教育 전공자를 선발하여 해외에 유학을 보냈다. 한국교원대학교가 설립되어 교과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였다. 그리고 1985년도에는 서울大學校 師範大學의 전 學科에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1986학년도부터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박사과정은 대학의 창설 이후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다가 최근에야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사범대학의 전 학과에 教科教育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이 독립적으로 설치된 것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있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범대학 대학원의 기본목표와 교과교육의 교육과정, 전공학문과목과 教科教育의 관계, 사범대학과 기타 대학 특히 인문대학이나 자연대학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문제들이었다. 이제 이 문제들이 師範大學 博士課程 설치와 함께 다시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本稿의 目的은 師範大學 教科教育 碩·博士課程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1) 사범대학 대학원의 목표와 교과교육 본질의 명확화, (2) 교과교육 교육과정의 체계화, (3) 사범대학 교과교육 석·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의 문제 등 세 가지를 제기하고, 그 해결의 방향을 시사해 보는 데에 있다.

이 研究는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사범대학 대학원의 교과교육과정 전반의 과제를 서술하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서술은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社會教育科의 예에 주로 집중하였다. 또 사범대학 대학원 과정의 발전과제에는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목표,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 외에도 시설과 행·재정 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들은 따로 분

석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져 여기서는 주로 目標과 教育課程운영의 문제를 취급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教科教育의 本質을 구명함으로써, 교육학의 발전에 공헌하고, 정책적으로는 사범대학 대학원의 교과교육 석·박사과정의 교육과정 개발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 II. 大學院 教科教育學科의 目標과 教科教育의 本質

사범대학 대학원에서의 教科教育의 발전을 위해여 가장 먼저 제기해야 할 과제는 대학원 교과교육학과의 목표와 교과교육의 본질을 바르게 인식하는 일이다. 이것은 왜 사범대학 대학원 교과교육학과가 존재하느냐의 문제와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먼저 검토하고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師範大學 大學院 教科教育學科의 目標

먼저, 사범대학 대학원의 目標를 살펴보겠다.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교사양성 기관이라고 하는 사범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학문연구와 교육계의 인력양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學問研究에는 教育學과 教科教育의 두 영역을 들 수 있으며, 교육관계의 人力養成에서는 중·고등학교의 교사와 대학의 교수 양성, 각종 연구소의 연구원, 교육행정의 지도자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鄭元植 등의 연구에서는 사범대학 대학원과정의 목표를 ① 教育學 전반에 걸친 학문적 연구 수행, ② 教科教育 영역의 학문적 연구수행, ③ 교육학과 교과교육학 영역의 교수 및 연구원 양성, ④ 현직 중등학교 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⑤ 특수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⑥ 師範大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教科의 대학원 과정 중에서 교육학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學科에 대한 教育協同課程의 제공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鄭元植 이의 2人, 1981:28-29). 李元植 등의 大學院 教科教育科 教育課程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범대학 대학원의 목표를 ① 교육학 및 교과교육 영역에 대한 연구와 교수, 연구요원의 양성, ② 현직 교사에 대한 教科別 자질향상 등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李元植 이의 3人, 1981:9-15).

사범대학 대학원과정의 목표라고 할 때에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교육학 및 교과교육 영역을 다 함께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특수영역의 전문가나 협동과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教科教育 영역의 學科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 教科教育 관련학과의 目標은 교과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대학원 교과교육학과의 目標은 ① 중등학교 및 대학 등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현장에서 교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교수 등의 교육인력 양성, ② 각종 교육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교과교육을 담당할 연구인력 양성, ③ 교육행정계의 교과교육관련 지도가 양성 등을 제일차적인 것으로

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敎科敎育 관계의 학과라고 해서 그것 이외는 연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또 졸업한 후에 평생동안 敎科敎育 영역에서 직업적으로 종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학문의 연구는 각 영역이 관련되어 있으며, 어느 한 영역을 다른 영역으로부터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다만 師範大學 大學院 敎科敎育學科의 존재의미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에는 제일차적인 목표로 敎科敎育과 관련된 교육인력, 연구인력, 교육행정의 전문가 등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차적인 목표는 다음에서 검토할 교과교육 교육과정의 구성이나 그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할 때에 분명하게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 敎科관련 學科의 목표를 이상과 같이 설정하는 데에는 최근에 기대되는 대학원의 역할에 관한 변화와 관련하여 몇가지 이유가 있다. 종래에 大學院은 주로 대학교수를 양성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대학원의 양적 팽창, 산업화의 진전으로 대학 이외의 사회 현장에서 專門인 知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專門人力을 요구하는 경향이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서 대학원은 대학교수 이외에 교육현장이나 연구기관, 행정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중견지도자의 양성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敎育學 分野 뿐만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大學院 課程의 의미가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달라지게 됨에 따라 師範大學의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의 의미도 재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사범대학의 대학원과정 중에서 碩士課程의 졸업생들은 상당수가 중·고등학교 敎師로 근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교육대학원의 팽창과 더불어 이러한 추세는 심해졌고, 고교 교사들의 學歷의 상승 등으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한 편이다(Freeman, Richard B., 1976). 교육연구기관에서도 석사과정의 졸업생들은 책임연구원으로서의 위치보다도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을 國內外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博士課程은 이와는 달리 大學에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요원과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자를 양성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또 敎育行政의 실무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 소유자에 대한 요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볼 때에 석사과정의 일부 학생들은 敎育研究 및 敎育行政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게 되지만, 상당수는 고교 교사로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주로 대학교수 및 교육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교육행정계의 전문지도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사범대학 대학원의 敎科敎育學科의 목표는 그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맡게 될 이상과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 고려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에서도 이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2. 大學院 敎科敎育의 本質

敎科敎育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과교육의 본질에 관하여 교과교육학과의 교수들은 물론 초·중등학교의 교사와 교원양성기관의 학생들이 명확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초·중등학교의 학교교과목인 敎科는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철학 등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또는 물리학, 화학 등의 자연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學問 그 자체를 교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敎科敎育의 본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등의 이른바 기초적인 學問과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敎科와의 관계이다. 이 문제에는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大學院 과학교육과의 교육과정을 연구한 李元植 등은 이 문제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科學敎育은 전문학문이며, 과학교육자는 전문직 학자인가? 교육기관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으면 과학교육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순수 자연과학인 과학과 인문·사회과학적인 교육학이 적결된 ‘체계를 갖춘 同化된 學問’으로서의 동질성을 지닐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科學敎育이라는 것이 일부 과학 일부 교육이라는 단편의 蒐습으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것인가?...” 이처럼 순수 자연과학과 과학교육의 관계, 또는 학문으로서의 科學敎育의 성격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科學敎育의 專門性은 점차 그 위치를 굳혀 가고 있음이 확실하다”(李元植 등, 1981:10-11)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등이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의 영역인 데 비하여 敎科敎育은 초·중등학교의 敎科目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는 명백해진다고 볼 수 있다. 교과교육의 한 영역인 社會科敎育 학자들의 견해는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62년에 출판된 “高等學校 社會科敎育”(Teaching Secondary School Social Studies)의 저자인 제임스 하이(James High)는 社會科敎育을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社會科는 사회과학의 학문적 발견에 관한 학교의 거울과 같은 것이다. 사회과학자들이 수집한 자료는 初·中等學校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통합되고 단순화된다.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과의 교사들이다. 교육과정은 경제학, 지리, 역사 등을 바탕으로 조직될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학교에서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현대사회, 사회과, 어떤 때는 홈룸(homeroom)으로까지 불리워지는 것들이다”(High, James, 1962:6-7)라고 서술하고 있다.

敎科敎育으로서의 社會科가 학문적 범주를 교수하는 것보다도 “훌륭한 市民”의 양성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도 그 특징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 시스트링크와 맥슨(Sistrunk and Maxon)은 “고등학교 사회과교육의 실제적 접근”(A Practical Approach to Secondary Social Studies)에서 社會科敎育의 목표를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실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폭넓게 가져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성숙한 市民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불가결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社會科教育은 바로 이러한 기술을 획득하게 하는 데에 책임이 있다. 民主社會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이러한 능력은 사회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필요한 정보의 수집, 다른 사람과의 협동 및 원활한 의사소통, 역사적 및 공간적 관련에서의 시각형성 등 人間關係, 정치, 경제, 사회, 국제문제 등 여러 영역에서의 능력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서술함으로써(Sistrunk, Walter, E. and Robert C. Maxon, 1972:5) 학교 교과목으로서의 특징을 잘 지적하고 있다. 教科로서의 社會科教育의 본질을 학문적 지식의 전달로 보지 않고 "시민교육으로서의 사회과"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반성적 탐구력으로서의 사회과" 등으로 규정한 바아르(Barr, Robert et al., 1978:17-30)의 견해 역시 이와 비슷한 것이다. 1980년대에 와서 社會科教育의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는 넬슨(Jack L. Nelson) 역시 사회과교육과 사회과학의 차이점에 관해서 "사회과학은 대략 대학수준에서 연구와 학습의 증진, 교수 등을 강조하는 분야이며, 社會科教育은 경제학,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및 기타의 사회과학을 바탕으로 한 초·중등학교의 교과목"이라고 서술하고 있다(Nelson, Jack L. and John U. Michaelis, 1980:5-6).

지금까지 教科로서의 社會科教育과 그 배경을 구성하고 있는 社會科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학자들의 몇 가지 견해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社會科教育은 사회과학을 내용으로 하여 성립하지만, 사회과학 그 자체를 교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회과교육은 市民教育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의 내용을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적합하도록 재조직한 학교의 教科目인 것이다.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발견하려고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社會科學者들이 밝히려고 하는 사회현상의 法則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며, 그러한 법칙이 경험적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고 보편타당한 원리로서 정립되는 데에 社會科學의 生命이 있다. 그러나 社會科教育은 학생들이 건전한 市民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현상의 법칙을 발견하려는 것은 사회과의 근본목적이 아니다. 社會科의 내용은 알기 쉽고, 매력적이며, 흥미있고, 학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회과학이 진리의 발견과 같은 學問的인 것을 중요시하고 法則의 발견에서는 신뢰도를 중요시하는데 비하여 社會科教育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사회과학의 내용을 현실생활에 알맞게 재조직하고 교수할 수 있도록 하는 면을 중시한다. 따라서 사회과교육은 日常生活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知性을 개발함과 동시에 건전한 態度와 價値觀을 정립하는 데에도 공헌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오늘날 국민학교의 義務教育 과정이 완벽한 취학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학교의 취학률도 98%에 도달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취학률은 80%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사회과의 이상과 같은 성격은 더욱 분명해진다. 中等教育은 이미 선택

된 집단을 엘리트적인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교육은 아니다. 國民學校의 義務敎育과 거의 마찬가지로 平均的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와 가치관을 학습하도록 하는 보통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敎科敎育으로서의 社會科敎育은 이러한 중등교육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내용이 이해되기 쉽고, 생활중심적이어야 하며,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敎科敎育으로서의 社會科敎育의 本質을 이상과 같이 고찰할 때에 사범대학 대학원과정의 교과교육은 교과교육에 대한 연구, 교과교육 담당자의 인격 양성, 교과교육행정계의 지도자 등을 양성하기 위한 내용을 본질적인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서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등 순수한 학문의 연구 그 자체라고 하기보다 교과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교과교육 교육과정과 학습지도를 연구하며, 敎科敎育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초·중등학교에서의 교과의 지도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소개하는 學部의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그 응용을 위한 연구적 성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자세한 방안은 “敎科敎育 敎育課程의 體系化”를 서술할 때에 제시하고자 한다.

### 3. 敎科敎育學科의 現況과 問題點

위에서 사회교육과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大學院에서의 敎科敎育의 목표와 본질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대학원 교과교육학과의 敎育課程 實態와 교수상황이 어떠한가를 살펴 보는 것이 방향 모색을 위하여 필요할 것 같다. 대학원의 敎科敎育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공 교수를 확보하고 그 목표와 본질을 바르게 인식하고, 교과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 敎育課程에 교과교육이 올바르게 개설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논의를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社會科敎育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1987년 현재로 우리 나라 大學의 學部課程에는 社會敎育科, 一般社會敎育科 또는 社會敎育科라는 이름아래에 “一般社會 전공” 등의 형태로 강원대, 경북대, 공주사대, 부산대, 서울대, 성신여대, 순천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제주대, 충북대 등 10여개의 대학에 社會科敎育의 전공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부산대 등에는 대학원에 사회과교육의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있고, 한양대, 경희대, 국민대, 원광대 등 대부분의 敎育大學院에는 사회과교육을 전공하는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대에는 교과교육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이 각 교과교육학과별로 1986년도부터 설치되어 학생을 모집하였다.

이들 관련 學科를 살펴볼 때에 敎科敎育을 전공한 교수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과교육이 매우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師範大學評價實施

委員會의 보고서는 전국 사범대학 교수 1211명 가운데 교과교육 전문가로 기재한 교수는 39명에 지나지 않으며, 단 한 사람의 교과교육전문교수가 없는 대학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사범대학 교수들이 각자의 專攻學問에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敎科敎育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해 왔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師範大學評價實施委員會, 1980:86-87). 敎科敎育에 대한 회박한 관심은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敎科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105명의 社會科 敎師들을 대상으로 사회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가 무엇이나고 5단계의 척도로 물었을 때에, 그들은 1位로 사회과 교육내용의 개편을 들었고(4.22), 2位로 사회과교육을 위한 학습여건(학급당 학생수 및 교육풍토 등)의 개선을(4.17), 3位로 社會科敎育 方法의 개선을(3.99), 그리고 마지막 4位로 사회과교육 목표의 재조정 및 명료화(3.94)를 들었다(東京守 外 2人, 1982:20-21).

교사들의 이러한 반응은 社會科에 있어서 정치학이나 경제학 등의 內容의 개선과 學習與件의 개선을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學習指導, 교육목표의 재정립 등 敎科敎育的인 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들은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왜 교육을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교육의 효과가 나는지, 또 사회과라고 하는 敎科目이 바람직한 市民의 형성이라고 하는 교육목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학습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敎育現場의 敎師들이 敎科敎育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

다음, 社會敎育科가 학부에 설치되어 있는 前記한 13개의 대학과 일반사회 전공 석사과정인 11개의 大學院 또는 敎育大學院의 敎科課程을 살펴 볼 때에 敎科敎育에 관한 科目이 몇 개 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한 두 과목의 교직과정의 필수과목이 학부에 있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대학원의 경우에는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경희대, 국민대, 부산대, 서울대, 성신여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월광대, 조선대, 한양대 등 11개의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84~86 요람에 의하면 社會科敎育 전공의 석사과정에서 사회과 교육론이나 사회과 지도법, 사회과 교재연구 등의 敎科敎育을 한 과목이라도 개설하고 있는 대학원은 서울대, 인하대, 영남대의 세 곳 뿐이다. 나머지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등의 교과목을 설치하고 있을 뿐이다. 敎育大學院은 대부분 敎科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교사들이 수학하고 있는 곳인데, 社會科의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교과교육을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敎科敎育 전공학자의 부족, 교과교육에 대한 이해의 소홀과 소극적인 태도, 대학원 교육과정



에서의 敎科敎育 科目의 부족 등이 현황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 Ⅲ. 敎科敎育 敎育課程의 體系化

사범대학 대학원 敎科敎育學科의 교과목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최근에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그것은 敎科敎育에 대한 관심의 점진적인 증가와 함께 대학원에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과정은 대학원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研究의 方向을 암시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과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內容, 구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관해서 서술해 보고자 한다.

#### 1. 基本的인 틀

대학원 敎科敎育의 敎科課程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어떠한 교과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그 교과의 학문적, 실천적 성격에 따라서 개설할 과목의 종류를 생각해 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교과교육의 영역에서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교과과정의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방법이다. 먼저, 敎科의 學問的, 實踐的 性格에 따라서 교과과정의 틀을 생각해 보겠다. 敎科敎育學은 이미 그 목표와 본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중등학교의 교과를 구성하는 지식의 체계와 효율적인 교육의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최근에 교과교육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연구는 이 문제에 커다란 시사를 주고 있다. 1987년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발전 세미나에서 李敎熙는 “교과교육의 기본적인 틀은 각 교과의 敎育史的 說明, 敎育철학적 분석, 敎育사회학적 이해, 敎育내용 선정과 조직의 원리, 敎育방법의 원리, 敎育제도적 이해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李敎熙, 1987:11). 이것을 교과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시켜 생각할 때에 敎科의 目標과 本質에 관한 연구, 교과에 관한 歷史的 研究, 敎育과정, 敎育방법, 敎育제도 등에 관한 科目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는 그 敎科와 관련된 영역의 틀을 설정하는 데 매우 유익한 기준이 된다.

大學發展에 관한 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대학원 역사교육과의 교과과정 구성에 관한 尹世哲의 연구는 교과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① 역사의 본질 및 他 분야와의 관계, ② 敎育과정, ③ 기타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역사의 본질과 타분야와의 관계에 관한 교과목으로 역사교육의 역사학적 기초, 역사와 사회과 교육을 제시하고, 敎育課程에 관련된 교과목으로 역사교육 목적론, 역사교육 내용구성론, 역사교육 지도론, 역사교육 교재론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상의 어느 영역에 넣기는 곤란하나 역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기타로 하여 歷史敎育史, 역사교육 연구법, 비교역사교육 등의 敎科科目을 포함시켰다(尹世哲, 1987:43-45). 尹世哲의 연구는 敎科敎育의 구체

적인 科目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크게 보면, 그는 역사교육의 본질과 역사교육의 교육과정 등 두 영역으로 나누고, 史的 연구, 연구법, 비교적 연구 등을 따로 제시했다. 敎科敎育의 중요한 내용인 목표론, 내용구성론, 지도방법론 등을 합하여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것이 그의 특징이다. 앞서 제시한 李敎熙의 틀과 尹世哲의 틀은 표현은 서로 다르고, 내용의 구체적인 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敎科敎育에 관한 연구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함으로써 교과과정 구성의 방향과 틀을 찾아 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과교육에 관한 박사과정의 논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美國 사회과의 자료를 참고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미국 사회과의 구체적인 관심이 우리의 관심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들일 수는 없는 것이지만, 敎科敎育의 연구영역의 틀을 형성하는 데에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오지아 대학교의 헵번(Hepburn, Mary A.)이 1977년에서 1982년까지의 사이에 미국의 32개 대학원에서 社會科敎育에 관하여 쓰여진 박사학위 논문 394편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연구논문들은 ① 교육과정 자료 105편, ② 교육방법 100편, ③ 학교 조직, 풍토, 교육과정 조직 96편, ④ 교사교육 및 교사의 특징 60편, ⑤ 외국의 사회과교육 33편으로 분류되어 있다(Hepburn, Mary A., 1985:78-80). 가장 많은 부분이 敎育課程에 관한 것이며, 학교조직 등 교육행정적인 부분과 교사교육에 관한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 학자들의 것과 다른 점이다.

또 이 연구에서는 394편의 논문을 研究의 형태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서술적 연구 177편, 실험적 연구 105편, 분석적 연구 56편, 발전적 연구 29편, 역사적 연구 22편, 민족지학적(ethnographic) 연구 5편 등이다. 서술적 연구는 주로 내용분석, 실험적 연구는 실험설계, 분석적 연구는 이론의 비판, 발전적 연구는 정책적 모형 제시, 역사적 연구는 史的 고찰, 民族誌學的 연구는 인류학적인 연구를 의미하였다(Hepburn, Mary A., 1985:77-78). 敎科敎育은 교육현장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목이므로 교육내용의 조직이나 교수방법의 혁신을 위하여 연구에서 實驗設計가 당연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 위의 연구에서도 서술적 연구 다음으로 실험적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실험적 연구방법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 2. 內容 構成

우리는 위에서 敎科敎育의 성격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과 교과교육에 관하여 행하여진 최근의 연구결과를 분석하면서 그 내용을 구성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 보았다.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교과교육에서 구성되어야 할 내용은 교과교육의 목표론, 내용구성론, 지도방법론, 교사론, 제도와 정책론, 연구방법론, 역사적 연구론, 비교연구론 등 8가

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大學院 教科教育의 범위는 이상과 같은 8가지의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教科科目을 개설하고 연구와 교수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8가지 영역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겠다.

첫째, 教科教育의 目標과 本質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다. 왜 그 교과가 성립하여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철학적으로 고찰할 수도 있으며, 교육목표의 진술방법 등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교과에는 그 교과의 성격에 따라 독특한 目標가 있을 것이므로 이들을 연구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둘째, 교과교육 內容의 選擇과 組織, 教材에 대한 연구이다. 교과교육의 교육과정 또는 教材研究, 教授資料研究 등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영역이다. 전공학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의 수준과 교육적인 목표에 맞추어 교육내용을 조직하고,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과제로 한다. 教科教育에서는 지도방법과 함께 핵심적인 부분이다.

셋째, 教科教育의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교과교육 지도론, 지도방법론, 교수론, 교수방법론 등으로 불리워지는 영역이다. 교과교육이 教育現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방법의 개발과 연구는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네째, 교과교육의 教師에 대한 연구이다. 職前 教師教育, 現職 教師教育, 교과교육 교사의 특징과 자질 향상 등에 관한 문제가 흔히 볼 수 있는 연구의 내용이다. 教師는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교사의 자질향상은 교과교육의 성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교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 현직연수방안 등은 중요한 연구과제가 된다.

다섯째, 教科教育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하나의 교과가 학교에서 교수되기까지는 문교부에서 정한 여러 가지 규정과 제도에 따라야 하며, 教育政策의 方向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社會科教育과 같이 정치, 경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國家政策의 方向은 교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교과교육에 관한 정책, 교과교육의 제도, 教科書에 관한 制度 등이 중요 문제를 구성한다.

여섯째, 教科教育 研究方法를 들 수 있다. 현장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실험이 필수적이므로 실험실계를 위한 연구방법의 연구가 크게 요청된다. 과학적 방법 뿐만 아니라 철학적·역사적 방법에 관한 학습도 이론의 정당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를 응용한 프로그램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학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교과교육의 史的 研究를 들 수 있다. 그 교과교육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되어 왔는가를 연구하는 역사적인 분석은 教科教育의 方向을 모색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教科教育이 현재의 문제만을 취급하기 쉽기 때문에 歷史的 研究를 병행함으로써 문화적 단절을 극복하고 교육의 適合性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개화기, 일제하, 해방후의 軍政시기 등 역사의 대변화를 겪은 경우에 역

사적 연구는 敎科敎育의 正體性 확립과 미래의 方向 모색을 위하여 필요하다.

여덟째, 교과교육에 관한 比較研究를 들 수 있다. 앞서 지적한 史的 연구와 比較研究는 교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교사, 정책과 제도 등 어느 문제든지 연구과제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학교 급별이나 남녀 사이의 비교 등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敎科敎育에서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比較研究는 교육의 목표, 제도, 교사의 특징, 내용조직 등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國家나 文化를 대상으로 비교하는 연구들이다. 교과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法則이나 경향을 발견하려고 할 때에 비교연구가 진행되지만, 자기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도 比較研究가 흔히 진행된다. 특히 社會科敎育과 같이 정치체제나 문화적 전통과 관계가 깊은 경우의 比較研究는 교과교육의 본질이나 내용을 깊이있게 이해하는데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 3. 敎科敎育科目의 構成比率

사범대학 대학원의 敎科課程에서 敎科敎育科目이 차지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범대학의 대학원 科目은 크게 보아 敎科敎育의 科目과 專攻內容科目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과교육은 학문적 성격, 연구방법,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이미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순수한 교육학 과목도 아니며, 또한 순수한 敎科의 內容科目도 아니다. 교육학 및 교과의 內容科目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예컨대, 經濟敎育이라고 할 때에, 경제교육의 내용은 경제학의 내용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내용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敎育學의 原理나 方法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敎育學은 교과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범대학 교과교육학과의 교과과정은 敎科敎育科目과 敎科의 內容科目의 두 가지 큰 영역으로 구성되고 그 배후의 지원영역으로 교육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敎科敎育의 科目과 專攻內容 科目의 敎育學의 구성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이들 領域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敎科敎育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敎育學科 이외의 학과에서는 교과교육은 대학원과정의 전공 과목이며, 그 學科의 교육목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敎科敎育은 학과의 목표로서 핵심적인 위치를 구성하고 있고, 교과의 내용과목이나 교육학의 과목은 그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주변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敎科敎育의 전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敎科의 內容科目이나 교육학 과목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기본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비율로서 敎科敎育科目이 전체 교과과정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 정도로 하고, 교과의 內容科目과 敎育學科目을 합쳐서 50% 정도로 하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과정 발전계획에 관한 鄭元植 등의 연구에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모두 교과교육과목과 전공내용과목의 비율을 3:7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鄭元植 외 2인, 1981:35-36). 즉 교과교육과목의 비율을 30%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敎科敎育의 구체적인 科目들을 고려할 때에 50%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50%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學科에서 學部의 학생들에게 설치하고 있는 교과교육의 基本科目은 대개 교과교육개론, 교재연구, 지도법 등의 세 과목이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교과과정의 체계화를 앞에서 서술했을 때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본과목으로서 목표론, 내용조직론(교육과정론), 지도론, 제도와 정책론, 교사론, 연구방법, 역사적 연구, 비교연구 등 최소한 여덟가지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들 주제를 바탕으로 특강 또는 연습과목을 구성한다면 과목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이 중에서 목표, 내용, 지도, 제도 등의 4개의 기본영역과목과 여기에 研究方法와 比較研究 등을 합하여 최소한 4과목 내지 6과목의 교과교육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석사과정의 27학점 9과목 중에서 4과목은 45%에 해당하며 박사과정 36학점 12과목 중에서 6과목은 50%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구성비율을 원칙으로 하여 교과내용 과목과 敎育學 科目은 학생들의 연구계획과 필요에 따라서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되도록 많이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각 學科에서 연구의 범위나 연구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자유스러운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수한 敎科科目을 수강하도록 지정하는 일은 최소에 그치고, 되도록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는 開放性과 融通性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서 敎育學科目을 대학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 문제는 사범대학의 교과과정에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師範大學의 특수성으로 보아 대학원과정에서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대학원 교과교육학과의 전공과목은 敎科敎育이며, 교과교육은 이미 교육학적인 성격을 띄우고 있는 것이다. 교육학 과목은 교과교육을 연구하는 지원영역이기 때문에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연구하는 주제의 성격에 따라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경제교육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경제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과교육을 학습하고, 敎育學科에서 교육과정에 관한 이론과 經濟學科에서 경제학에 관한 이론을 필요에 따라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鄭元植 등의 연구에서도 박사과정과 연결되는 석사과정에서 교육학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李元植 등의 연구에서도 박사과정에서는 교육학과목을 필수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 尹世哲은 교과교육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학의 이론이나 학설은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학 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再考되어야 하며, …」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교육학 과목을 필수로 하는 것도 再考하여 교육학 과목의 이수는 학생 본인과 지도교

수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尹世哲, 1987:45-46).

#### IV. 大學院 運營과 관련된 問題

지금까지 大學院 敎科敎育의 목표 및 본질을 살펴 보고, 이에 따라 교과과정의 구성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이제 대학원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敎科敎育學科가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의 해결방향을 시사해 보고자 한다. 석사과정은 이미 설치되어 왔으므로 관련 문제가 심하지 않으나,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博士課程은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서 學科의 독립성과 학생모집의 문제, 어학시험의 문제, 주야간 개설과 석·박사과정 통합운영의 문제, 논문지도와 심사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간략하게 서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學科의 독립성과 학생모집에 관련된 문제이다. 敎科敎育의 學科 중에서 社會敎育科, 科學敎育科, 外國語敎育科는 각각 지리, 역사, 일반사회, 물리, 화학, 생물, 영어, 독일, 불어 등 이들을 구성하는 몇 개의 학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이들을 통합한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大學校의 경우 이들 學科는 學部에서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도 이름은 사회교육과 또는 외국어교육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독립된 학과로 운영되고 있다. 교수와 학생이 독립된 學科에 소속되어 있고 학생모집도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博士課程에 있어서도 學科의 명칭은 사회교육과 또는 외국어교육과 등의 이름으로 설치되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할지라도 학생모집이나 운영에서는 獨立性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교육이나 외국어교육이 하나의 統合敎科로 발전되고 있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方向에서 박사과정이 운영되려면 中·高校에서의 敎科目의 統合組織과 이에 따른 사범대학 學部の 재조직, 교수의 초학과별 임명제도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先行條件으로 고려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學部에 존재하고 있는 각 學科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학생을 모집하고 대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基本原理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入學試驗에서 外國語試驗科目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이 입학시험에서 영어, 제 2외국어, 專攻科目 등 두 과목의 외국어시험을 치르게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합격 여부가 專攻科目의 시험보다는 외국어과목에 의하여 결정되는 예가 가끔 있다. 따라서 입학시험에서 外國語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비중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車京守, 黃禎奎, 1985:46-49). 각 學科에 따라서는 제 2외국어보다도 統計學과 같은 연구방법이 연구의 도구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학시험에서는 영어와 전공과목의 두 가지로 하고, 제 2외국어 대신 학부나 석사과정의 內申成績을 입학시험에서 고려하는 방법도 강구될 수 있다. 學部の 입학에서도 내신성적이 고려되는데, 대학원의 입학에서 內申成績이 전

히 고려되지 않고 단지 몇 시간의 시험결과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에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것이다. 만약 內申成績을 포함시키는 것이 당장 실시하기 어려운 과제라면, 外國語시험의 下限線의 기준을 좀 올려서 일단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學位論文 提出 資格試驗과 관련된 외국어시험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격시험에서 실시되는 영어시험은 지금과 같이 영어를 담당하는 學科에서 전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도 專攻學科에서 전공과 관련된 영어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일반영어와 전공영어의 비율은 5:5 정도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자격시험은 논문을 작성할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學科에 입학한 후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博士課程의 경우 자격시험에서 영어 이외에 제 2외국어의 시험을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로 하는 것은 再考되어야 한다. 學科에 따라서는 제 2외국어보다도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방법에 연구를 더 많이 의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統計學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제 2외국어 시험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박사학위의 자격시험에서 영어와 專攻科目은 필수로 하되, 제 2외국어의 시험과 統計學 과목의 이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때에 통계학의 이수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하여 9학점 정도를 이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1984년과 1985년에 韓國大學敎育協議會가 마련한 國內 主要 大學院의 실태조사를 위한 대학원장들과의 면접에서 대부분의 대학원관계자들이 이 점을 찬성하고 있었다(車京守, 黃禎奎, 1985:51-53).

넷째, 주·야간 개설문제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통합운영문제가 있다.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고등학교의 敎育現場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현직에 있는 교사들을 위하여 夜間課程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학생들을 위한 주간과정의 설치 역시 필요하다.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학원 석사과정의 목표는 고등학교 敎育現場의 指導者養成을 위한 과정과 전문학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 과정도 석사과정은 論文課程과 非論文課程으로 나누어서 논문과정을 석사논문을 작성하고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주간과정으로 하고, 비논문 과정은 고등학교의 敎育現場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分化는 大學院敎育의 목표를 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學生들이 그들의 장래진로를 결정하고 현실에 적응하는 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강의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統計學과 같이 공통으로 이수케 하는 科目은 통합운영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끝으로, 다섯째, 論文指導에서 委員會制度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學科에 소속해 있는 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지도교수가 박사논문을 지도하여 완성하고, 논문지

도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의 인사가 심사위원이 되어 논문을 심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한 사람의 지도교수가 논문을 지도하기도 어렵거니와 지도에 전연 참여하지 않은 심사위원과 論文作成者 사이에서 논문의 방향이나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심사보다도 지도의 과정에서 철저한 지도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를 위하여 3인정도의 論文指導委員會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가 논문계획시부터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지도하고, 심사에도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 V. 結 論

최근 國民普通教育으로서의 中·高等學校 教育의 質的 向上的 문제가 제기되면서 師範大學의 教科教育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범대학의 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다. 1986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과교육학과에 독립적으로 박사과정이 설치된 것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교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教科教育의 목표와 본질을 분명히 하고,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의 教育課程을 개발하며, 學科의 운영과 관련하여 大學院 教科教育 學科의 성격, 어학시험, 논문지도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교육학 및 교과전공 내용의 두 가지 영역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教科教育의 학문적 독립성과 연구방법 등에 관하여 아직도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상과 같은 논의는 교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教科教育의 본질이나 영역에 관하여 아직 명확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략 教科教育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등 학문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하는 학교의 教科目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 학문적 법칙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비하여 교과교육은 학생들이 훌륭한 國民으로 성장하는 교육적인 면에 관심이 있는 데에서 兩者는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大學院 교과교육의 교육과정은 教科教育의 본질과 목표론, 교과교육 교육과정론, 지도방법론, 제도와 정책론, 교사론, 연구방법론, 교과교육의 역사적 연구, 비교연구 등 8가지의 영역을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 사범대학 대학원의 교과교육과정 교과목은 크게 보아 教科教育과 專攻內容科目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교과목의 구성비율은 兩者를 50% 대 50%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석사과정 27학점 9과목 중에서 4과목은 45%에 해당되며, 박사과정 36학점 12과목 중에서 6과목은 50%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박사과정의 운영에서는 전공학과의 의사를 존중하여 統計學을 연구의 도구로 인정하고, 學位論文 지도시에는 委員會制度를 도입하는 등 대학원과정의 운영에 관



한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師範大學 大學院 敎科敎育學科의 발전과제 몇 가지를 시사하였다. 敎科敎育의 학문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대학원 교과목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지금까지 시사한 것은 주로 敎科敎育 그 자체의 발전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교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학원 내부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교과교육을 담당하는 敎師의 資質向上,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의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의 개선, 교과교육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제고 등 학교 이외의 여러 가지 개선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과교육은 교육현장에서 敎師들에 의하여 교육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敎科를 담당하는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근무조건의 개선, 사범대학 학부 프로그램의 개선은 물론 현직교사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敎育의 제도적인 면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제도만을 바꾸려는 정책으로부터 敎室內의 수업을 質的으로 향상시키려는 교육정책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敎室의 授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敎科敎育의 발전이야말로 敎育의 발전을 위하여 핵심적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參 考 文 獻

- 姜煥國(1984). “韓國 師範大學 社會敎育科의 發展方向 探索”, 社會와 敎育, 7, 23-38.
- 金泳燦外 5人(1983).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大學院課程 運營政策에 관한 研究, 文敎部 研究報告書.
- 師範系大學 評價實施委員會(1980). 師範系大學評價報告書(1978. 9~79. 3).
- 서울大學校 師範大學(1986). 大學發展 세미나.
- 서울大學校 師範大學(1987). 大學發展 세미나.
- 尹世哲(1987). “歷史科 大學院 敎科課程”,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大學發展 세미나.
- 李敦熙(1987). “師範大學 敎育의 體制와 運營”,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大學發展 세미나.
- 李元植外 3人(1981). 大學院 科學敎育科(物理, 化學, 生物, 地球科學) 敎育課程 및 運營에 관한 研究, 文敎部 研究報告書.
- 鄭元植外 2人(1981).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大學院課程 發展計劃, 文敎部 研究報告書.
- 車京守外 2人(1982). “産業社會 敎育의 目標와 方向에 관한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 靑少年의 生活과 産業社會의 社會科敎育.
- 車京守(1984). “高等學校 社會科敎育의 目標로서의 「市民의 資質」의 概念 研究”, 師大論叢, 28, 57-73.
- 車京守·黃楨奎(1985). 碩·博士課程 學位審查制度 強化 方案. 文敎部 政策課題 研究報

告書。

韓國教育開發院(1979)。教育課程 國際比較研究。

韓國大學教育協議會(1985)。大學院 運營 評價報告書。

韓國社會科教育學會(1986)。國家發展斗 社會科教育, 1986年度 學術研究發表會報告書。

Banks, James A. (1977).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Barr, Robert *et al.*, (1978). *The Nature of the Social Studies*. Palm Spring, Cal.: ETC Publications.

Carr, Edwin R., (1968). *The Social Studies*. New York: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Inc..

Hepburn, Mary A., (1985). "An Overview of Social Studies Dissertation, 1977~1982,"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Vol. XIII, No. 2, 73-82.

High, James. (1962). *Teaching Secondary School Social Studie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Lowe, William T. (1969), *Structure and the Social Stud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Mehlinger, Howard D. and O.L. Davis, Jr. (1981). *The Social Studies*. Eightieth Yearbook of the NSS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Nelson, Jack L. and John U. Michaelis (1980). *Secondary Social Studies: Instruction, Curriculum, Evalu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Sistrunk, Walter E. and Robert C. Maxson (1972). *A Practical Approach to Secondary Social Studies*. Dubuque, Iowa: W.M.C. Brown Co., Publisers.

Sloan Commission, (1980). *The Report of the Sloan Commission on Government and Higher Education*. Cambridge, Mass.: Ballinger Publishing Co..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raduate Programs of Secondary  
School Teaching in College of Education

Kyung Soo Ch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graduate programs of secondary school teaching in college of education with special emphasis on social studie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As the important role of secondary school for citizenship education is recognized, special attention to secondary school teaching is recently increasing. As a result,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ly opened doctoral programs in secondary school teaching for the first time in Korea. Under this situation, it is urgently needed to develop graduate programs of secondary school teaching for doctoral degree.

From this study, it is recommended that the graduate programs of secondary school teaching should offer teaching method courses such as the studies on objectives of secondary school teaching, secondary school curriculum, teaching methods, teaching materials, school teachers, policy on subject matters, organization and climate of schools, research methods, and comparative studies. It must be also emphasized that secondary school teachers should study not only scholarly subject courses such as social sciences or natural sciences but also teaching method courses mentioned above. It is suggested that teaching method courses should be about 50% of all courses. This is equivalent to 4 courses among 9 of Masters' program, and 6 courses among 12 of doctoral program.

